‘고령화 가속’ 광주·전남 30년 뒤 인구 57만명 감소

호남지방통계청, 광주·전남 저출생·사회 변화 발표

유소년 인구 30~40% 감소…전남 고령인구 2배 증가

광주·전남지역 인구가 30년 뒤에는 광주는 29만여명, 전남은 28만여명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광주·전남은 매년 전년 대비 인구 감소 비중을 나타내는 장래 인구성장률 감소폭이 증가하면서 인구 감소세가 더 가팔라 질 것으로 예측됐다.

혼인 감소 및 저출산 현상 지속 등으로 1인가구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호남지방통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호남·제주지역 저출생과 사회의 변화’를 발표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과 인구 감소세가 가파른 광주 등 호남·제주지역의 저출생 등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가구, 혼인·출생, 일·가정 양립 등 분야의 통계청 및 외부 기관 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 및 재구성했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인구는 지난 2022년 147만명이었지만, 2052년에는 118만 1000명으로 30년 새 28만 9000명이 감소한다.

같은 기간 전남 인구는 177만 5000명에서 149만 5000명으로 28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장래 인구성장률이 지난 2022년 기준 -0.44%로 전북(-0.83%), 전남(-0.57%) 등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오는 2052년에는 광주(-1.15%)가 전북(-1.06%), 전남(-0.9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남지방통계청은 매년 낮아지는 합계출산율 및 혼인율 등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봤다.

광주·전남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중은 오는 2052년 30~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시 유소년 인구 비중은 지난 2022년 기준 12.6%를 기록했지만, 2052년 예상치는 8.7%로 3.9%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 역시 2022년 유소년 인구 비중은 11.1%였으나, 30년 뒤에는 6.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전남지역 유소년 인구가 지역 인구 10명 중 1명 꼴도 안되는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지역 고령인구 비중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시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15.1%였지만, 2052년 예상치는 38.8%에 달한다. 전남 역시 고령인구 비중이 24.4%에서 49.6%로 뛰어 전국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 상승세도 가팔라 질 전망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 2015년 이후 호남,제주 전 지역에서 1인가구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 및 혼인율 저하 현상이 지속되면서 1인가구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봤다.

광주와 전남의 1인가구 비중은 지난 2015년 기준 각각 28.8%, 30.4%였으나, 2022년에는 35.5%, 36.1%로 대폭 늘었다. 1인가구 증가폭 역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통계청, 가구주택기초조사…옥탑·반지하 전수조사

통계청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 옥탑과 반지하를 전수조사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통계청이 내년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앞서 실시하는 것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택 통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거처와 가구의 기초정보를 파악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의 옥탑과 반지하 현황을 모두 파악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20% 표본을 추출해 조사해왔다.

통계청 조사 자료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해 건축연도 5~30년 미만 아파트의 경우 현장조사 없이 행정자료 등으로 조사항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장 조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통계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통계청장, 시도 통계책임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조사 준비를 시작했다.

내년은 인구 조사(센서스) 100년을 맞는 해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족돌봄시간’ 등 사회 다변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을 포함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

금호타이어, 독일 축구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후원

금호타이어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프루트 관계자가 파트너십 조인식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2027년까지 파트너십 체결

금호타이어가 독일의 명문 축구 구단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를 후원키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프랑크푸르트와 오는 2027 시즌까지 3년 간 후원 계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홈경기 광고판과 시설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브랜드 및 광고를 노출할 계획이다. 공동 이벤트와 프로모션도 펼친다.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올린 매출은 전년 대비 약 44%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유럽 시장 매출 성장률은 연평균 20%를 넘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독일 등 세계 시장에서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프리미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코스피 덮친 미국발 ‘반도체 공포’…2820대까지 떨어져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락

코스피가 18일 대형 반도체주가 줄줄이 급락하면서 2,820대로 물러섰다.

차기 미국 대선 경쟁 주자들이 반도체 등 무역규제 강화 경쟁을 벌이는 여파로 간밤 미국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했다.

이날 9시 3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26.06포인트(0.92%) 내린 2,817.04다.

지수는 전장보다 37.65포인트(1.32%) 내린 2,805.64로 시작해 1% 넘게 내리다가 낙폭을 소폭 줄였다.

시가총액 1, 2위인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1.61%)와 SK하이닉스(-2.72%)가 연이틀 내리고 있다. 두 종목은 전날에는 각각 1.14%, 5.36% 급락했다.

전날 대형주가 줄줄이 내리며 2,840대로 밀렸던 코스피가 연이틀 미국발 악재에 직격탄을 맞으며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0.59% 올랐지만,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2.77% 급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1.39% 하락했다.

국내 반도체 종목 주가와 연동된 엔비디아(-6.62%)를 비롯해 AMD(-10.21%), 브로드컴(-7.91%), 퀄컴(-8.61%), 마이크론(-6.27%) 등이 크게 부진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6.81% 하락했다.

‘엔비디아 수혜주’로 꼽히는 한미반도체(-4.14%)는 이틀째 크게 내리고 있고, 원팩(-6.91%), 워트(-5.33%), 테크윙(-4.17%), 디아이(-4.37%)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관련 중소형주도 연이틀 하락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23억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2억원, 462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3원 내린 1,379.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삼성바이오로직스(-0.47%), 현대차(-1.49%), 기아(-0.73%), 셀트리온(-0.68%), 포스코퓨처엠(-1.21%) 등이 내리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0.15%), LG화학(0.15%), 삼성생명(0.32%) 등이 소폭 오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한전산업(23.67%), 한전기술(17.23%), 한전KPS(10.9%), 우리기술(14.37%), 두산에너빌리티(7.29%) 등 원전주는 급등하고 있다.

‘트럼프 수혜주’로 부상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3.82%), 한화시스템(2.39%), LIG넥스원(0.63%) 등 방산 종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7.94포인트(0.96%) 내린 821.47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07억원, 88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512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에코프로비엠(1.73%), 에코프로(2.75%), 대주전자재료(0.58%), 펄어비스(0.76%), 휴젤(0.46%), 실리콘투(0.94%) 등이 오르고 있고, 알테오젠(-1.46%), 엔켐(-5.14%), 클래시스(-3.33%), HPSP(-3.9%) 등이 하락세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824.35 (-18.94)
↓	코스닥	822.48 (-6.93)
↑	금리 (국고채 3년)	3.058 (+0.008)
↑	환율 (USD)	1381.55 (+0.05)

‘인력난’ 제조업에 외국인 유학생 손 보탠다

중기부, 대학·기업·외국인 간담회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논의

정부가 국내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 업계를 돕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공학대학교에서 대학·기업·외국인과 간담회를 열고 관계 부처와 준비 중인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약 17만명으로, 이들 중 35.4%가 국내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기업과 유학생 간 구인·구직 정보의 미스매칭(불균형), 비자 발급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한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중기부는 이에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제조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타개할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을 준비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확대 ▲지역별 유학생 채용 매칭센터 신설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공급 ▲비자 발급 및 재직 지원 등 국내 유학생 활용 기반 고도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민석 기자 mskim@

삼성전자, 6년 연속 올해의 에너지대상

‘갤럭시 북4 엣지’ 장관상

삼성전자가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7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서 주요 부문상을 휩쓸었다.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은 에너지 절감 및 고효율 성능이 우수한 제품에 수여하는 에너지 관련 상과 탄소중립과 관련된 활동과 성과가 우수한 기업 또는 제품에 수여하는 탄소중립 관련 상으로 나뉜다.

삼성전자는 이번 시상식에서 6년 연속 에너지대상, 3년 연속 탄소중립위너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에너지대상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는 ‘갤럭시 북4 엣지’가 이름을 올렸다. 이 제품은 온디바이스와 클라우드를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인공지능(AI)’을 통해 보다 혁신적이고 안전한 AI PC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기존 모델 대비 대기전력 50% 저감, 전력 효율성은 80%를 개선했다. 탄소중립위너상에는 주기적 교체가 필요 없는 리유저블 필터를 탑재해 일회용 폐기물을 저감하는 효과를 인정받은 ‘비스포크 큐브 에어 인피니트 라인’ 공기청정기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무풍에어컨 벽걸이와 비스포크 AI 인덕션이 각각 에너지절약상, 에너지기술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비스포크 큐브 에어 인피니트 라인,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그랑데 건조기 AI 등 총 4개 제품이 에너지위너상에 뽑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경진원, 동네 컨설팅 참여자 모집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대상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동의 애로해소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동네 컨설팅’ 참여자를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공동으로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동네 컨설팅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동네·상권 그룹(3~5인)을 대상으로 컨설턴트가 선정되면 업체를 방문해 진행한다. 경제 불황으로 인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매출감소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 정체기를 벗어나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지원 ▲디지털 전환 ▲수출 분야로 전문 인력들이 도모하여 세부적으로 마케팅, 홍보, 프랜차이즈, 브랜딩, 세무 등 다양하게 운영방법에 대해 방향성을 제공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과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예비창업자는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전남경진원 경영컨설팅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이마트 광주점, 피코크 제품 최대 40% 인하

밀키트·김치 등 300여개 상품

이마트 광주점은 18일 “19일부터 프리미엄 자체브랜드(PB)인 ‘피코크’의 상품 가격을 최대 40% 전격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피코크가 운영하는 상품은 총 700여개. 300여개 상품 가격이 저렴해진다. 특히 인하 대상 상품 중 100여개는 기존보다 가격이 20% 이상 하락한다.

피코크는 이를 통해 프리미엄 상품 등 주요 상품들을 상시 최적가에 판매해 ‘고품질 가성비’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격 인하 상품은 각종 밀키트, 국·탕, 볶음밥, 김치, 우유 등 필수 먹거리가 중심이며, 해당 품목 판매가는 기존 대비 5~40% 인하한다.

밀키트의 경우 밀푀유나베, 소불고기, 새우 감바스, 부채살 찹스테이크 등 총 10개의 인기상품이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국·탕류에서는 김치찌개, 육개장, 설렁탕 등 20여종의 가격이 각각 600~2500원 내린다.

차돌깍두기볶음밥, 새우볶음밥 등 냉동볶음밥류 6종은 최대 3000원 저렴해져 1만원 미만 가성비 상품 종류가 증가한다.

또 김치, 우유, 생수 등 생활필수 상품들도 모두 저렴해진다.

‘아삭하고 시원한 포기김치(3.3㎏)’는 6900원 저렴해진 1만 9900원에, ‘더 클래스 우유(900㎖)’는 650원 내린 2280원에, ‘트루워터(2ℓ·6개입)’는 2880원에 판매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